

정부 첨단업종 대폭 확대엔 '수도권 쏠림' 불보듯

10년 공들인 광주 전략산업 고사 위기

기준금리 동결... 현행 3.0% 유지

금융위 "내달부터 물가 상승률 둔화할 것"

김재균 의원 지적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10여년동안 키워왔던 광주의 전략산업이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제 등이 대폭 완화돼,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있다하더라도 공장 시설 용지 면적의 2배까지 증설이 가능해진다.

1396개사(서울 550, 경기 755, 인천 91개)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데, 전후방 기업군과의 연계성, 전문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수도권으로의 이전을 원하는 기업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참고자료에는 "첨단업종에 포함된 성장유망 업종의 수도권 내 투자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융위는 12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어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연 3.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물 올리면 경기침체 불안심리,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8월 한은도 2011년 3월 중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7.3%나 올라 2008년 11월의 7.8% 이후 2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삼부토건 법정관리 신청

PF대출금 만기 연장 못해

삼부토건이 13일 만기 도래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가 도래한 PF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이날 서울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작년 기준으로 도급순위 34위의 건설회사다.

삼부토건은 이날 시공사인 삼부토건 및 동양건설산업과 13일 만기가 돌아오는 서울 내곡동 현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의 PF 대출 4270억원에 대해 만기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美 시장 승차 현대·기아차"

포춘誌 전망

1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25일까지

대상자는 116만명

국세청은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분기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규 개업자의 신고대상 기간은 개업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 신고는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세정시스템인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현대·기아차가 올해 미국 자동차시장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춘이 전망했다.

11일 포춘에 따르면 이 잡지는 2011년이 불과 석 달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일본의 대지진에 따른 자동차 생산 차질, 중동 정정 불안으로 인한 석유 가격의 급등, 하이브리드·전기차 개발 경쟁 등으로 이미 자동차 시장에 커다란 격변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환경에서 경쟁력을 발휘하면서 선전하고 있는 승자와 그렇지 못한 패자를 선정했다.

"中企 지원 한도액 늘려달라"

한은 개최 광주·전남 중기대표자회의 열띤 토론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12일 관내 중소기업 대표자, 금융기관 지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부 회의실에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대표자회의(사진)'를 개최했다.

(光)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에 대해 공감하고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모르고 있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Table with economic indicators: 코스피지수 (2,089.40), 코스닥지수 (525.11), 금리 (3.72%), 원·달러 환율 (1,093.60원)

Advertisement for '방수' (Waterproofing) by '이앤지' (I&N). Features images of products and text describing benefits like durability and ease of application.

Advertisement for '원적외선 방사 웰빙기 출시' (Infrared Radiation Well-being Machine Launch). Includes product image and details about health benefits and pricing.